

# 기업하기 좋은 임실만들기

### 임실군, 중소기업 경영규제·애로사항 적극 수렴 간담회 열어

임실군이 지역기업의 경영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24일 군에 따르면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노후된 농공단지에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들여 농공단지 정비 및 가로수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개선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만으로 충분한 기업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



임실군이 경영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해 나가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지역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모든 치매환자 치료비 월 3만원 이내 지원

남원시가 모든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남원시는 지난 13일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치매환자 지원을 위해 시비 5,400만 원을 편성해 소독제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 대해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년 36만원 한도)이내에서 살비 지원했다.

지원 신청은 남원시치매안심센터에

등 록된 치매환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행정정보동의서, 통장 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보건지소에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는 지난 11월 9일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부지 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조기검진사업, 상담 및 가족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민

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남원시 현재 65세 인구가 2만1,432명으로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치매 유병률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치매는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며 진단 못지않게 약 복용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한편, 증상 심화를 방지할 수 있고, 조기에 약물 치료를 할 경우 8년 뒤 요양시설 입소율이 7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내년도 하수도 행정 체계화

남원시 환경사업소가 2018년 한해 동안 완벽하고 깨끗한 하수처리와 시민에 대한 최고의 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펼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부 주관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490억 원을 확보해 하수도 공사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10월 공사착공에 들어갔다.

해당사업은 남원시 하천 내 매설되어 있는 오수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불명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시가지 내의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 관로로 분리해 이송할 수 있는 오수관로 정비가 목적인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0

년 하반기까지 전체사업 완료 목표 추진 할 계획으로, 2019년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통한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악취 및 하수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하수도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타 사업(도시가스, 상수도 등)과 병행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중 굴착에 따른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 개개인을 위한 사업인 만큼 불편사항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으로 슬러지감량과 소

화효를 개선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슬러지 처리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탄화시설 연료비, 소화조 가연연료비 등 총 2억원의 예산절감을 하는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처리시설로 운영했다.

특히, 남원시 환경사업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도분야 경영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는 지난해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공유를 통한 개선, 관로 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관로 개보수 등의 항목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가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최고를 가리는 '군정베스트 10' 발표대회를 가졌다

# 안전총괄계, 올해 최고 행정 베스트상 수상 순창군, 군정베스트 10 발표대회

순창군이 올해 군정을 빛낸 10개의 우수사례를 확정하고 최근 최고를 가리는 '군정베스트 10'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대회는 지난 10월 공개모집 결과 응모한 30개의 사례에 대해 내부평가단(부서별 주무계장)의 서류심사를 거쳐 확정된 10개 우수사례의 현장 발표심사가 진행됐다.

최종 발표심사에 오른 10개의 우수사례는 ▲신병수료식도 가능했던 순창 ▲지역적 성장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공영주차장 조성) ▲순창군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공연 확대 ▲행복주택 신축사업 ▲우리집의 SOC 순창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 산업 육성사업 ▲2018 순창 세계 소스 박람회 ▲지역연계의 한계를 넘어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 ▲주민 스

로, 주민이 필요한 곳에, 주민을 찾아 움직이는 '밀착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날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수, 연구원, 前공무원 등 외부평가단 5명이 심사했으며, 심사단과 발표팀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군정 우수사례 중 최고를 가리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다. 최종 우수사례는 서면평가 60%와 발표평가 40%를 토대로, 발표부서의 참여도에 따라 가산점을 추가해 선정됐다. 2018 군정베스트 10의 최고 영광인 '베스트'에는 재난안전과 안전총괄계의 '신병수료식도 가능했던 순창'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초로 순창에서 신병수료식을 유치하고 신병과 더불어 부모들이 함께 순창에 체류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순창의 문화, 먹거리 등을 알릴 수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생산 화장품 미국 수출길 올라

남원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장품이 지난 24일 미국 수출길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우수 화장품제조시설(CGMP)을 운영하고 있는 (주)원스킨화장품(대표이사 김경희)은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있는 미국 화장품 시장에 ELLA BEAUTY 브랜드로 SKU 38종, 12만2,000개의 화장품을 제조업자 개발 생산(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수출했다. 이번 수출 물량은 1차 납품이며, 제품 샘플들이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내년 초에 추가로 이번 주문량의 3배 이상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스킨화장품의 관계자는 단순 하청생산방식인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 아닌 ODM방식의 수출로 화장품 개발의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고 고용도 꾸준히 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화장품은 미국 LA에 있는 화장품 도매시장(LA JAVA market-JOIA accessory)을 통해 미국 전역의 mass market beauty chain, mass retail chain, drugstore chain 등으로 판매되며, 이외에도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로 수출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호평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시설) 운영이 호평받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설 운영을 통해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5,400톤을 해당 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민간위탁 처리시 발생하는 예산 대비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5.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시설은 정부의 음식물 자원화정책 기조 아래 국비 11억1,600만원과 시비 29억5,400만원 등 총 사업비 40억 7,000만원이 투입된 시설로, 시설운영을 통해 관내 발생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하수처리 시설과 연계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음식물쓰레기를 파쇄, 분쇄, 이물질 제거 등 전처리과정을 거쳐 하수슬러지와 함께 소화조에서 20일간 소화시킴으로 바이오가스를 추출하게 된다.

류장기 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먹음 만큼만 조리하기와 같은 생활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

### 시행 대비 경로당 홍보강화

순창군이 내년 1월에 본격 시행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 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농약을 사용 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순창군과 4개 관계기관(농협,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은 PLS가 농업현장에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370곳의 경로당을 방문했다.

더욱이 고령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마 형식의 교육영상과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